정보격차·정보문화 해외동향

2008. 10. 13

정보격차·정보문화 해외동향분석 자료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조사연구팀에서 관련 해외동향을 조사, 정리하여 매주 1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조사연구팀 이윤희 선임연구원 02-3660-2722 unistar@kado.or.kr

목 차

EU, 보편적 서비스의 미래를 논의하기 시작 ····· 1

美, 사이버 괴롭힘 소송 사건 ····· 3

미국 10대들의 온라인 괴롭힘은 일반적인 현상 ····· 5

인도의 인터넷 중독 문제 ····· 8

英, 인터넷 동영상 연령 등급 부여 계획 ····· 10

작성자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이윤희 선임연구원 unistar@kado.or.kr
출처, 출처일시	EUROPA, 9월 25일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8/1397&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제목	EU, 보편적 서비스의 미래를 논의하기 시작

□ 주요 내용

o 모든 유럽인들이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것이 EU의 주요 과제임

o EU의 광대역 이용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세 배가 되어 가정의 36%에 이르지만, EU 인구의 7%(농어촌 지역의 30%)는 여전히 접속하지 못하고 있음
- EU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인구 전체(100%)가 광대역에 접속하는 반면, 루마니아의 60%(농어촌 지역의 75%)는 접속하지 못함
- 이탈리아,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조차 농어촌 인구의 각 18%, 12%가 접속하지 못하고 있음

o 일상생활에서 광대역의 중요성이 증가함으로써 전파 스펙트럼 운영과 모바일 위성 서비스와 같은 정책 도구들은 텔레콤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넓은 논의를 동반해야 함

o 유럽 집행위원회는 경쟁적인 시장이 EU 시민들에게 광대역 인터넷을 널리 알맞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간
- 지금까지 EU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함

(1) 광섬유 네트워크를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위한 규제 지침을 발간했고, 유럽은 2008년 1월에 거의 1억 개의 광대역 선을 가지고 20%의 성장을 함

(2) EU 전역에서 위성을 통해 광대역을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위성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올 여름에 구축됨
- 유럽 의회와 협의회는 서비스 허가를 위해 27개 절차 대신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고, 모바일 위성 운영자들이 현재 집행위원회에 신청

(3) 2007년 11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주파수 스펙트럼 운영의 개혁을 위한 제안을 했는데, 이는 9월 24일에 유럽 의회에 의해 서명됨

o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는 이러한 대책이 충분한지 또는 새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가짐
- 또한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유럽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집행위원회 취임 이래 모바일 가입률이 85%에서 112%로 증가함

□ 시사점

o 모든 EU 시민들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누리게 하기 위해 EU는 시장의 경쟁과 투자를 촉진하고, 모바일 서비스에 투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텔레콤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통해 모든 지속적인 정책 검토와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작성자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이윤희 선임연구원 unistar@kado.or.kr
출처, 출처일시	redOrbit, 10월 3일 http://www.redorbit.com/news/technology/1576426/cyberbullying_suit_filed_in_st_louis_county_circuit_court/
제목	美, 사이버 괴롭힘 소송 사건

□ 주요 내용

o 미국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순회 재판소에 제기된 한 청원에서 Facebook 계정을 통한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딸이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

-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측이 개인 계정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함

o 이 사건은 세인트찰스에서 벌어진 Megan Meier(13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사건과 유사

- Meier는 우울증이 있었는데, MySpace에서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으로부터 화나게 하는 메시지를 받은 후 자살함
- 그 사람은 이웃이자 친구의 어머니인 Lori Drew로 밝혀졌고, 그녀는 Meier가 자신의 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아내려고 했음
- LA 검찰은 Lori Drew를 그 소녀에게 감정적인 괴로움을 가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함
- Drew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각에 대해서 5년형에 처해지는 4개의 혐의를 받고 있고, 6월 16일 MySpace가 위치한 LA 법정에 소환되었으며 무죄를 항변함
- 10월 7일로 예정된 재판은 지방법원 판사 George Wu가 소송취하를 신청한 피고 측 의견을 심사하기 위해서 연기되었고, 다음 재판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o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순회 재판소 청원서에 따르면, 16세 딸 SMB는 Facebook에서 가명으로 활동한 용의자(Jane Doe)와 친구가 됨

- SMB의 아버지는 Doe가 자신의 딸이 소년 'JB'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딸의 정신적인 상태를 파악한 후, JB와의 관계에 라이벌을 만들어 냄으로써 정서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

o SMB의 아버지는 딸의 의료비 25,000달러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재판소가 Facebook 측에 용의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를 요청하고 있음

o 이번 사건은 7월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번 소송에 새로운 미주리 인터넷 괴롭힘 법을 적용할 수 없음

o Meier의 자살에 대한 대응으로 주 장관 특별 태스크포스가 인터넷 괴롭힘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됨
- 미주리 검사는 적용할만한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Drew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함

o 의사소통은 글씨로 쓰거나 전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삭제함으로써 기술과 보조를 맞추면서 괴롭힘을 막기 위한 州법이 개정되고 있음
- 이러한 법은 컴퓨터, 문자 메시지, 기타 전자 장치들을 통한 괴롭힘을 포괄함

o 그러나, Drew를 기소하기 위해 사용된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하에서 Doe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이 법은 전형적으로 컴퓨터 해커를 대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용자가 거짓으로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웹사이트 서비스 규정과 관련해서 사용되며, 이 법이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된 경우는 처음임

□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로 인터넷 괴롭힘에 대해 미국 지방정부는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음

o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법 정비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보문화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함

작성자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이윤희 선임연구원 unistar@kado.or.kr
출처, 출처일시	UCLA Newsroom, 10월 2일 http://www.newsroom.ucla.edu/portal/ucla/bullying-of-teenagers-online-is-64265.aspx
제목	미국 10대들의 온라인 괴롭힘은 일반적인 현상

□ 주요 내용

o UCLA 심리학자들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10대들의 4명 중 거의 3명은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10명 중 오직 1명만이 부모나 다른 어른들에게 말했다고 응답함

o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 중 85%는 학교에서도 괴롭힘을 당해왔음
-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은 학교 괴롭힘의 희생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경우에 더 높았음

o 이번 연구는 12~17세 1,454명을 대상으로 익명의 웹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은 2005년 8~10월에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십대 청소년 웹사이트를 통해 추출됨
- 이 결과는 Journal of School Health 9월 호에 실림

o 연구원 Juvonen은 조사된 10대들 중 41%는 1년 동안 1~3건의 온라인 괴롭힘 사건을 신고했으며, 13%는 4~6건, 19%는 7건 이상을 신고했다고 말함
- 많은 십대들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이버 괴롭힘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함

o 십대들이 부모에게 온라인상에서 괴롭힘 당했다는 것을 거의 말하지 않는 이유로 절반이 대처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
- 또한 31%는 부모가 그들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걱정은 특히 12~14세 소녀들에게서 일반적인 것으로, 같은 연령대의 소년의 27%에 비해 소녀의 46%가 걱정함
- 12~14세의 1/3은 부모와 문제가 생길 것이 두려워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o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 중 73%는 누가 괴롭히는지 알거나 알고 있다고 확신함

- Juvonen은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 괴롭힘이 익명이라는 지배적인 통념의 반증이다.”라고 말함
- 괴롭힘을 경험한 참가자들 중 51%는 학교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43%는 오직 온라인으로만 알았던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고, 20%는 학교친구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함

o 온라인과 학교 내 괴롭힘의 가장 지배적인 형태는 별명 부르기나 모욕을 포함하고, 다음으로 가장 일반적인 사이버 괴롭힘 방식은 비밀번호 도용

- 또한 괴롭힘은 위협, 당혹스러운 사진 전송, 허락 없이 개인 정보 공유, 추문 퍼트리기 등을 포함

o 학교 내와 온라인 괴롭힘 모두를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UCLA 심리학 연구 동료 교수인 Elisheva Gross가 말함

o 전자 통신 장비들은 십대들 사이에서 문제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친구들과 반사회적이고 건전한 방식 모두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고 Juvonen은 말함

o 부모와 다른 어른들은 온라인 괴롭힘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고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은 경시할지도 모른다고 Juvonen은 말하면서, 학교가 양쪽 모두의 감소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권고

- 학교는 괴롭힘에 맞서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포함해서 괴롭힘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몇몇 학교들은 사이버 괴롭힘을 다루고 있음

o 2005년 조사에서는 LA 지역 2개 공립학교의 6학년 학생들 중 거의 절반이 5일간 급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함

- 괴롭힘은 민족 집단과 소득 수준 계층 간에도 발생한다고 Gross는 말함

o 또 다른 2005년 연구에서, Nishina와 Juvonen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중학교 학생들은 우울, 외로움, 비참함을 느끼기 쉽고, 이것은 그들을 더 심한 괴롭힘 사건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보고함

- 학교에서의 괴롭힘으로 많은 학생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자퇴까지 함

o Juvonen은 부모들에게 괴롭힘이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어린이들의 행동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줄 것을 충고

o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종종 두통, 감기, 기타 신체적 질병에 걸림

o 최근 설문조사 참가자 1,454명 중 75%는 여성, 66%는 백인, 12%는 흑인, 9%는 라틴계, 5%는 아시아계였고, 참가자들은 50개의 주가 모두 반영됨

□ 시사점

o 미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괴롭힘을 겪고 있고, 학교에서의 괴롭힘이 온라인으로 연관되고 있으며, 이를 부모나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남

- 오프라인에서의 괴롭힘이 온라인과 연관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부모나 교사 등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시설 및 절차가 지원되어야 함

o 학부모에게 자녀의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 인식하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부모 대상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

작성자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이윤희 선임연구원 unistar@kado.or.kr
출처, 출처일시	DNA, 10월 2일 http://www.dnaindia.com/report.asp?newsid=1194883
제목	인도의 인터넷 중독 문제

□ 주요 내용

o 인도 뭄바이의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은 간과되고 있음

- 인터넷 중독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고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뭄바이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o 인터넷은 이메일, 채팅, 서핑, 소셜 네트워킹, 엔터테인먼트, 게임, 포르노그래피 등 과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매체이고, 일단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우며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부류임

o 2007년 IMRB 보고서 '인도의 인터넷(Internet in India)'에 따르면, 청소년은 변화하는 시대와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성장할 만한 대상 집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 다르면, 18-35세의 54%가 활동적인 인터넷 이용자이며, 취학 아동의 14% 또한 이 부류에 포함
- 사이버카페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편리한 표현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취학 아동의 57%, 대학생의 58%가 자주 이용하고 있음

o 인터넷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는 종종 현실 도피 욕구로 나타남

- 심리학자 Malini Shah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긍심 또는 자존심이 약한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서 도피를 추구
-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체성을 속여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온라인 채팅에서 쾌감을 추구한다. 감정적 불안을 겪고 나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사람들, 충동적이고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 자주 인터넷에 중독된다."

o 인터넷 중독은 온라인 이용 중에 폭식하거나 반대로 전혀 먹지 않는 등의 증상을 종종 보이고, 눈과 등에도 일반적인 문제가 생김

o IMRB 보고서에 따르면, 총 인터넷 이용자의 75%가 청소년이며, 이들의 주요 유인 요소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가 65%를 차지함
-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게임, 채팅, 이메일, 음악 다운로드 등

o 많은 국가들에서 현재 인터넷 중독 장애(IAD: Internet Addiction Disorder)를 공중 보건의 한 이슈로 보고 있음
- 미국 정신 의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에 실린 논문의 저자인 Jerald Block 박사에 따르면, 이 장애는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교본에 포함되어야 함
- 뭄바이의 부모와 교사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음
- 전문가들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단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함

□ 시사점

o IT 분야의 선두주자인 인도에서도 인터넷 중독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주로 청소년, 대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o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험성,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며, 학생과 부모, 교사 대상의 인식제고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o KADO는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으로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중독원인은 연령과 인지발달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이윤희 선임연구원 unistar@kado.or.kr
출처, 출처일시	Mirror.co.uk, 9월 30일 http://www.mirror.co.uk/news/top-stories/2008/09/30/age-warning-for-net-videos-115875-20761118/
제목	英, 인터넷 동영상 연령 등급 부여 계획

□ 주요 내용

o 영국은 폭력적인 콘텐츠를 경고하기 위해 영화 방식의 연령 등급을 웹사이트에 부여할 계획

- 18, 15, PG, U 등급 분류로 어떤 동영상이 청소년들이 보기에 적합한지를 보여줄 예정

o 이 경고는 내년부터 실행될 예정인데, 이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한 내무부 장관 Jacqui Smith의 뜻에 따른 것임

- 이 경고는 온라인 콘텐츠와 비디오 게임에 대한 정부 재검토의 부분으로서 구성될 것임

o Gordon Brown 총리는 어린이들을 자살 사이트, 사이버 괴롭힘, 노골적인 자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감시단체를 발족했음

- 영국 어린이 인터넷 안전 위원회(UKCCIS)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가정에 조언을 제공할 예정

□ 시사점

o UKCCIS 설립과 함께 인터넷의 불건전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참고할 수 있음(정보격차·정보문화 해외동향 10월2주 참고)

o 개인 누구나 동영상을 자유로이 제작하고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